

# “노인 체험 해보니, 할머니 이해했어요”

## 영통복지관, 노인생애체험센터 운영

대학생 7명이 모여 노인생애체험복을 입는다. 무릎구속도구와 팔꿈치구속도구를 착용하자 관절을 움직이기가 힘이 든다. 조끼모양으로 된 등 구속도구를 입자 허리가 굽어지고 특수 안경을 쓰자 시야가 확 좁아지고 앞이 뿌옇게 보인다. 팔다리에 모래주머니까지 착용하자 온몸이 축 늘어진다. 다들 뚱이 80세 노인으로 바뀌었다.



노인생애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무릎구속도구와 팔꿈치구속도구를 착용하고 백내장 특수 안경을 쓴 뒤 주방 체험을 하고 있다.

이곳은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내 마련된 영통노인생애체험센터. 수원시가 건립하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수원시가 위탁운영중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생애체험센터는 KRA 한국마사지(수원지점)의 예산지원을 받아 2010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부터 초·중·고 대학생 및 중장년층까지 영통노인생애체험센터를 다녀간 사람은 현재 6600여 명이 넘는다. 이들은 거실·주방·감성·보행·문손잡이·욕실·침실체험 등 가상체험을 통해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을 이해하게 된다.

쉽게 이동하지 못했다. 식탁에는 실버용품들이 있었다. 손가락에는 줄을 붙이고 젓가락에는 집게를 붙여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일반 수저로 밥을 떠먹기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이다. 앞부분을 깎아내 목을 뒤로 많이 젓하지 않고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든 컵, 음식을 흘리지 않게 흡이 깊게 파인 접시가 인상적이다. 싱크대는 휠체어를 탄 노인을 위해 뚫려 있었고 설거지하기 편하게 찬장도 낮게 설치 돼 있었다. 음료수병에 적힌 유통기한을 특수 안경을 쓰고 읽자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10월 18일 생애체험 참가자들은 간호학과 재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 체험 전 학생들은 강사인 윤지미 사회복지사의 안내로 노인생애체험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윤지미 사회복지사는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준 뒤 “여러분들이 소외된 노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이 체험의 교육효과”라고 설명했다.

“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집에 가면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많았구나.” 학생들은 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많은지 이해하게 됐다.

학생들은 주방으로 갈 때 시야가 좁아

쉽게 이동하지 못했다. 식탁에는 실버용품들이 있었다. 손가락에는 줄을 붙이고 젓가락에는 집게를 붙여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일반 수저로 밥을 떠먹기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이다. 앞부분을 깎아내 목을 뒤로 많이 젓하지 않고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든 컵, 음식을 흘리지 않게 흡이 깊게 파인 접시가 인상적이다. 싱크대는 휠체어를 탄 노인을 위해 뚫려 있었고 설거지하기 편하게 찬장도 낮게 설치 돼 있었다. 음료수병에 적힌 유통기한을 특수 안경을 쓰고 읽자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집에 가면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많았구나.” 학생들은 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많은지 이해하게 됐다.

“보라색, 파란색 보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더 잘 보였을거예요. 이 세 가지 색은 신호등 색깔이죠? 신호등을 개발한 사

람이 안구질환이 있어서 앞이 잘 안보이고 색 구별을 잘 못해도 그나마 보이는 색이라서 신호등 색깔로 정해져 있는 거랍니다.”

체험을 마친 학생들의 반응은 비슷하다. 최현수(23) 씨는 “모래주머니를 오래 하고 있으니까 발꿈치가 저렸어요. 안경 쓰고 움직이니 어지러웠어요. 우리 할머니가 식사를 하실 때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라고 했다.

정진호(25) 씨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프시고 어떻게 하면 힘드시다는 것을 아니까 맞춰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하는 값진 체험이었습시다”라고 환히 웃었다.

윤지미 사회복지사는 “노인생애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대부분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며 “한번이라도 체험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빨리 늘고 있는 나라다. 현재 종교교세의 학부모가 노인이 되는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서양의 격언에는 ‘노인은 자신이 두 번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신이 늙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노인생애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체험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이나 병원 종사자, 노인분야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는 물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중장년층도 가능하다. 초·중·고생의 경우 체험시간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준다. (031)201-8331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국내 최초 장애인 락 콘서트 개최

군포시장장애인복지관, 26일 락페스티벌 개최

국내 최초로 장애인 락 콘서트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군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은 10월 26일 오후 6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제1회 사람·사랑 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군포시의 후원을 받아 군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에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락밴드 5개 팀이 공연을 펼친다.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2장의 앨범을 올린 허클베리핀, KBS2TV ‘탑밴드 2’에서 활약을 펼친 ‘4번 출구’, 다문화다국적 노래단 ‘몽땅’, 장애 아동·청소년의 어머니로 구성된 ‘모래밴드’ 등이 축하공연에 참여해 올 가을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게 된다.

이번 락 페스티벌을 준비한 군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송명훈 음악치료사는 “문화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음악을 통한 여가 생활을 돕고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에게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락 페스티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주체가 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전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



직까지는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장애인도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용철 관장은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문화 활동 참여를 돕고, 지속적인 락 페스티벌을 열어 전국에 산재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예술 단체를 발굴하겠다”며 “장애·비장애인을 위한 즐거운 음악축제이자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무료공연으로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031)399-1888 이나는 기자

## “악기 재능 있는 어르신 모이세요”

안양시노인복지관, 어르신 밴드 단원 모집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양숙)은 10월 15일부터 어르신 밴드 단원을 모집한다.

복지관은 악기연주 실력을 갖춘 어르신들로 구성된 전문 밴드 공연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안양시청의 초청으로 복지 박람회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악기연주 경험이 있거나 밴드에 관심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여방법은 복지관 회원가입 후 내방상담 및 간단한 오디션을 보면 된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의 밴드는 어르신들의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상을 확산시키며, 나아가 음악적 재능을 통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031)455-0551

## 생명나눔의 날 산사음악회 성료

학인스님·학생 등 17명에 장학금 전달가져

생명나눔에 동참한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생명나눔의 의미를 새기고 실천하는 행사를 열었다.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2부 산사음악회는 김병조 씨의 사회로, 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주병선 씨와 국악신동 송소희 양을 비롯해 심진 스님, 김연자, 이정옥, 유지나, 김경연 씨 등이 출연해 노래와 공연을 선보였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0월 13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생명나눔과 인연을 맺은 장기기증 및 후원회원, 유관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생명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한편 이날 불암사 경내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참가가 이어졌다. 또한 송산실버문화센터(관장 범일)가 준비한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자비바자회’도 함께 열려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2012 생명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불교방송 이선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는 2003년 생명나눔을 통해 신장기증을 한 영월 스님과 시신 기증자 故 김영현 씨 가족 등 기증자 16명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 생명나눔은 창립 발기위원이자 상임운영위원으로 법인 발전에 기여한 종실 스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군법담 캠페인을 협조한 정명근승, 홍보대사 김병조 씨에게

이날 일면 스님은 “광야를 걸어가는 길 동무처럼,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자는 멸하는 세상이라 해도 멸하는 법이 없다”며 “자비나눔에 동참하는 고마운 분들의 정성이 우리 사회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0월 13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생명나눔과 인연을 맺은 장기기증 및 후원회원, 유관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생명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장기 기증 수 있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념식에는 부이사장 종호 스님(제석사 회주), 본행사 주지 정수 스님, 경기도의회 이용석 의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 센터 표우현 사무관, 불교방송 이재원 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생명나눔의 날 기념식에 앞서 재단법인 일면장학회(이사장 일면 스님)는 2012년도 후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일면장학회는 이날 승원 스님(해인사), 동하 스님(중앙승가대) 등 학인 스님 9명과 이주현(동국대), 이재상(홍익대) 등 대학생 3명과 윤진호, 김효은(광동고) 등 중고등학생 6명에게 각각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나는 기자

## 조계종 복지재단, 10월 30일 복지 간담회

같은날 미래복지포럼도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교구본사 및 봉사법인 사회복지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복지재단은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프로그램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범인설립 추진사례 △복지시설 운영사례 △자원봉사 조직화 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재단은 또한 간담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조기봉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를 초청해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중단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중단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중인 교구본사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구본사 및 봉사법인 사회복지관계자 간담회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02)723-5101 이나는 기자

## 생명나눔의 민간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장기기증은 뇌사 시 소중한 신체의 일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생명나눔 민간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 ◆ 뇌사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 ◆ 환 자 돕 기 :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농협 053-01-243772 (생명나눔) ARS 060-703-1133
- ※ 장기기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민간홍보대사로 등록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문의 : 02-734-8050 www.lisa.or.kr

생명나눔실천본부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305호

## 능가산 내소사

# 첫번째 패불재 掛佛齋

## 그리고 열번째 가을산사 음악회

2012년 10월 27일 토요일

중창불사 회향법회 오전 10시  
패불재 오후 1시  
가을산사 음악회 오후 6시

▶ 가을산사 음악회 출연진 ◀



도선스님



안찬환



김매곤



장건탄종정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후원 -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저절로생활협동조합, 법보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 BBS불교방송, BTN 불교TV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주지 진학